

나쓰메 소세키의 『산시로』와 염상섭의 『만세전』 비교 연구*

—기차 안 승객의 현실인식을 중심으로—

權赫建**
kwon6134@hanmail.net

<目次>

- | | |
|-----------|-----------------------------|
| 1. 서론 | 4. 『산시로』에 나타난 히로타 선생의 현실 인식 |
| 2. 선행연구 | 5. 『만세전』에 나타난 갓장수의 현실 인식 |
| 3. 기차의 의미 | 6. 결론 |

主題語: 기차(train), 현실인식(perception of reality), 근대화(modernization), 근대문명(modern civilization), 히로타선생 (Hirota teacher), 갓장수 (gat-seller)

1. 서론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서양으로부터 문명·문화가 몰밀 듯이 들어와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시대에 한·일 근대문학 작품에 묘사된 민중(民衆)들이 근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근대, 분석해 보는 것은 동북아시아 근대사 근대화를 를 포함한 관련 학문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本稿)에서는 한·일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이하 소세키로 간략하게 표기함) 작품 『산시로(三四郎)』(1908년)와 염상섭(廉想涉, 1867~1916) 작품 『만세전(萬歲前)』(1922년)을 비교하여 근대화 수단으로 이용되고 발전되어 온 기차의 의미, 두 작품의 주인공들이 관찰한 기차내 승객들의 현실 인식을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산시로』와 『만세전』 두 작품에 나타난 히로타 선생(広田先生)과 갓(笠)장수의 현실 인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당시 근대를 살아가던 민중들의 근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을 점검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11AA009)

** 東義大學校 日語日文學科 教授, 日本近現代文學 專攻

2. 선행연구

『산시로』 한 작품에 대해 1908년(明治41)부터 1993년(平成5)까지 85년간 일본에서 발표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한 권의 단행본으로 간행한 무라타 요시아(村田好哉)의 『漱石『三四郎』書誌』¹⁾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산시로』에 관련된 선행 연구물은 1,200편을 상회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세전』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산시로』에 비교할 만큼의 수량은 아니라고 해도 한국 근대문학의 다른 어느 작품보다 연구물 수량이 많다. 그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 된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면 아래와 같다.

세키카와 나쓰오(関川夏央)는 소세키는 기차를 싫어했고, 경멸했지만 그에 비해서는 「작품 속에 많은 기차를 등장시켰고, 본인도 자주 승차했다. 작품 속 묘사도 정확」²⁾했다고 주장했다.

에비이 에이지(海老井英次)는 산시로가 「히로타 선생으로 불리는 한사람의 남자와의 만남은 켈처 쇼크(culture shock)의 첫 번째 파도」³⁾였다고 주장했다.

김윤식(金允植)은 염상섭이 「일본문단에서 배울 만한 것은 <기교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한갓 헛소리이다. (중략) 그가 일본문단에서 배울 것이 기교 밖에 없다고 한 것은 그의 눈엔 일본문단이 너무 낮아어, 이상한 점이 조금도 없었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⁴⁾고 냉혹하게 지적했다.

김지연(金志娟)은 『만세전』은 식민지 근대에 의한 경제적 착취가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사회적 구도를 정확하게 조명하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적극적으로 투쟁을 실천하지도 못하는 모습」⁵⁾을 보여주고 있다고 논했다.

오준영(吳俊永)은 『산시로』 연구가 昭和40년대(1965-1974) 이후에 「주제파악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져왔던 연구의 흐름으로부터 작품의 부분적 요소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주제에 접근하려는 방식으로 바뀌어」⁶⁾왔다고 논했다.

최해수(崔海秀)는 소세키와 염상섭의 문학적 영향관계에 대하여 「염상섭 문학에서 소오세키의 영향은 고등유민 등의 명사 차용 외에도 고백체 등의 문장에서 발견」⁷⁾된다고 주장했다.

1) 村田好哉(1994) 『漱石『三四郎』書誌』翰林書房, pp.7-269

2) 関川夏央(2004) 「漱石と汽車」『夏目漱石と明治日本』文藝春秋, p.49

3) 海老井英次(2001) 『開化・戀愛・東京-漱石・龍之介-』おうふう, p.46

4) 김윤식(2004) 『염상섭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p.348

5) 金志娟(2009) 「일상성을 통해 본『만세전』의 근대성 연구」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p.52

6) 오준영(2005) 「일본에서의『산시로(三四郎)』 연구경향과 성과 조명」『나쓰메 소세키의 전기삼부작 연구』제이앤씨, p.69

7) 崔海秀(2004) 「나쓰메 소오세키(夏目漱石)와 염상섭문학의 영향관계 연구-『나는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와『박래묘(舶來猫)』-」『일본근대문학-연구와 비평-3』도서출판月印, p.331

고, 「산시로」의 아픔이 실연으로 인한, 개인적인 아픔이라면 이인화의 그것은 시대와 정체성의 아픔⁸⁾이라고 논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발표된 선행 연구물 가운데 소세키의 『산시로』와 염상섭의 『만세전』에 묘사된 기차 안 승객 가운데 히로타 선생과 갓장수에게 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 집중적으로 비추어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대에 한·일 양국 민중들의 현실인식을 하나의 테마로 선정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물은 이렇게도 발견하지 못했다.

3. 기차의 의미

기차의 외연적 의미는 디젤기관 또는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관차에 객차나 화물차를 연결하여 궤도 위를 운행하는 차량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이다. 철도는 「서양문명의 위력」⁹⁾을 보여준 근대성을 표상하는 文明의利器이다. 근대시대에 탄생한 기차는 개인에게는 시공간을 정복하는 새로운 경험을 안겨 주었다.

일본이 영국의 재정원조를 받아 도쿄 신바시(新橋)와 요코하마(横浜)간 철도 건설에 착수한 것은 1870년(明治3) 3월 25일의 일로, 영국인 기사 에드먼드 모렐(エドモンド・モレル)의 기술 지도를 받아 작업을 강행한 끝에 「1872년(明治5) 9월 12일에 무사히 개통식을 거행하여 문명개화에 대한 강한 인상」¹⁰⁾을 심어줄 수 있었다.

한국 철도는 「1899년 9월 18일 노량진-제물포간 33.2km의 경인선이 개통」¹¹⁾된 것이 효시다. 이후 일제 강점기였던 1905년 1월에 경부선, 1906년 4월에 경의선, 1914년 1월에 호남선, 같은 해 9월에 경원선, 그리고 1942년 4월에 중앙선이 개통되어 기차가 전국을 잇는 교통망으로 체계를 구축했다.

근대시대에 탄생된 기차는 한·일 근대문학자의 창작 영역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소세키는 1895년 시코쿠(四国) 마쓰야마중학교(松山中學校)와 1896년 제오고등학교(第五高等學校)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도쿄↔구마모토(熊本) 간을 기차로 왕복했던 경험이 있다. 그는 영국유학을 떠나 런던에 도착한 후 1900년 12월 26일(水)에 아내 나(熊本)코코에게 보낸 편지에 「런던의

8) 崔海秀(2005) 「청년지식인 근대체험의 두 양상-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三四郎』와 廉想涉의 『萬歲前』의 비교-」 『日本學報』 제62집, p.248
9) 湯本豪一(1998) 『圖說明治事物起源事典』 柏書房, p.324
10) 위의 책, p.324
11) <http://theme.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449&pageFlag=C> 참조(검색일:2011.12.12)

번성은 직접 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 정도이다. 마차, 철도, 전철지하철, 지하전철 등이 거미줄처럼 둘러 치져¹²⁾ 있다고 런던의 철도와 지하철에 대하여 표현했던 적이 있다. 런던에서 기차를 이용해 본 경험 때문인지 그는 기차를 여러 작품에서 작품의 소재로 사용했다.

1906년(明治39) 4월에 잡지 「호토토기스(ホトトギス)」에 발표된 『도련님(坊っちゃん)』의 주인공인 붓짱은 도쿄에서 물리학교를 졸업하고 시코쿠(四国)에 있는 어느 중학교의 수학 선생님이로 부임한다. 붓짱은 시코쿠에 도착하여 정거장에서 3전에 차표를 구입하여 「성냥갑 같은 기차¹³⁾」를 타고 약 5분쯤 가니 자신이 근무할 중학교 주위에 내려야 했다. 『도련님』에 묘사된 기차는 당시 시코쿠 마쓰야마(松山)에서 운행되던 성냥갑 같이 만들어진 작은 기차가 소재로 사용된 것이다.

1906년(明治39) 9월에 춘양당(春陽堂)에서 발행했던 잡지 『신소설(新小説)』에 발표된 중편 소설 『풀베개(草枕)』에서 「기차만큼 이십 세기 문명을 대표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¹⁴⁾」라고 표현했다. 또한 기차를 「하얗게 반짝이는 철로 위를 문명이라는 긴 뱀¹⁵⁾이 꿈틀대며 달려온다고 묘사했다.

『산시로』(1908년)에서는 주인공 산시로가 시모노세키(下関)에서 도쿄의 신바시(新橋)까지 삼등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 기차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연변의 주변풍경 등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행인(行人)』(1912년) 주인공 형은 인간의 불안은 과학의 발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가기만 하고 멈출 줄 모르는 과학은 일찍이 우리에게 멈추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 도보에서 인력거, 인력거에서 마차, 마차에서 기차, 기차에서 자동차¹⁶⁾ 그 다음엔 비행기, 어디까지 끌려갈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다고 기차를 포함한 과학의 발전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염상섭이 일본유학을 떠난 것은 1912년 9월 초순이었다. 관립사범부속보통학교, 보성소·중학교를 거쳐 1912년 9월 일본으로 건너가 1915년 9월 교토(京都) 부립 제2중학교를 졸업하고, 게이오대학(慶應大學) 문과에 입학했으나 병으로 자퇴했다.

그도 일본유학을 하기 위해 서울↔부산, 시모노세키↔도쿄 간을 운행하는 기차를 이용하여 도쿄와 서울을 왕복했다. 그때의 경험 때문인지 그의 작품 『만세전』에는 부산, 김천, 영동, 대전, 서울 등 철도역을 중심으로 정차와 승차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기차 안에서 만난

12) 夏目金之助(1995) 『日記』『漱石全集 第19卷』岩波書店, pp.199-201

13) 夏目漱石(2005) 『坊っちゃん』『2』岩波書店, p.18

14) _____(2003) 『草枕』13 岩波書店, p.172

15) 위의 책, p.174

16) 夏目漱石(2005) 『行人』『32』岩波書店, p.347

승객들의 다양한 모습은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 기차역 대합실 풍경, 거리풍경이 이인화라는 관찰자의 시선에 의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4. 『산시로』에 나타난 히로타 선생의 현실 인식

『산시로』는 1908년(明治41) 9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29일까지 117회에 걸쳐서 도쿄·오사카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연재된 소설이다. 주인공 23세의 오가와 산시로(小川三四郎)는 구마모토를 출발하여 도쿄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우연찮게 만난 한 여성과 나고야(名古屋)의 여관에서 하룻밤을 같은 방에서 묵게 된다.

산시로는 여관의 숙박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를 규슈(九州) 「후쿠오카현(福岡縣) 미야코군(京都郡) 마사키무라(真崎村)」¹⁷⁾ 라고 적는다. 산시로가 숙박부에 쓴 「마사키무라」라는 주소는 소세키가 창작을 위해 가공의 지명을 만들어 쓴 것이다.

하지만 후쿠오카현 미야코군은 소세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고미야 도요타카(小宮豊隆, 1884-1966)」의 고향이다. 산시로의 주소가 미야코군으로 나와 있는 것을 기념하여 고미야 도요타카의 출신학교인 도요쓰중학(豊津中学), 현재의 이쿠토쿠칸고등학교(育徳館高等学校)의 교내에는 「산시로 숲(三四郎の森)」을 만들어 안내 간판 「산시로 숲 유래(三四郎の森の由来)」에 「산시로의 모델은 고미야 도요타카」¹⁸⁾라고 표기해 놓았다.

고미야 도요타카가 도쿄제국대학 재학 중일 때 런던에서 소세키와 같은 하숙집에 살았던 그의 사촌형 이누즈카 다케오(犬塚武夫)의 소개로 소세키가 보증인이 되어준 것, 소세키의 추천으로 고미야 도요타카가 게이오대학(慶應大学) 문학부 강사가 된 것, 고미야 도요타카가 아사히문예란(朝日文藝欄)을 주무대로 한 평론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소세키에게 인정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산시로의 고향을 고미야 도요타카의 고향으로 사용한 것 등을 고려해 보면, 소세키는 산시로의 모델을 제자 고미야 도요타카를 소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산시로가 규슈에서 도쿄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구마모토에서 출발을 했는지 자신의 고향인 후쿠오카현 미야코군에서 출발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17) 夏目漱石(2003) 『三四郎』(1) 岩波書店, p.12

18) 논자가 직접 후쿠오카현(福岡縣) 미야코군(京都郡) 미야코초(みやこ町) 도요쓰(豊津) 973번지에 있는 이쿠토쿠칸고등학교(育徳館高等学校) 교내의 「산시로 숲(三四郎の森)」을 방문하여 간판에 쓰여 있는 「산시로의 모델은 고미야 도요타카」라는 글 내용을 확인했음.

『산시로』가 발표된 것이 1908년(明治41)인 것을 고려해서 살펴보면 「혼슈(本州) 야마구치현(山口縣) 시모노세키시(下関市)와 규슈(九州) 후쿠오카현(福岡縣) 기타큐슈시(北九州市) 모지(門司) 간을 연결하는 간몬해저철도터널(関門海底鐵道トンネル)의 복선화가 완성된 것이 1944년(昭和19) 9월 9일¹⁹⁾이었으므로 산시로가 규슈에서 기차를 타고 바로 시모노세키까지 갈 수 없었던 시대였다. 산시로는 규슈 기타큐슈시의 모지(門司)에서 연락선을 타고 바다 건너인 시모노세키까지 건너간 후, 1901년(明治34)에 개통된 고베↔시모노세키 구간을 운행하는 산요선(山陽線)을 타고 고베까지 간 것이다. 산요선은 현재의 JR 산요본선(山陽本線)이다.

산시로가 시모노세키에서 운임이 저렴한 삼등열차를 타고 도쿄로 이동하는 경로는 시모노세키→히로시마(広島)→고베(神戸)→오사카(大阪)→교토(京都)→나고야(名古屋)→도요하시(豊橋)→하마마쓰(浜松)→도쿄의 신바시(新橋)에 이르는 공간이다. 그 가운데 산시로와 히로타 선생이 기차 안에서 주로 대화를 나누는 구간은 도요하시→하마마쓰 주변을 지날 때이다.

도쿄에 있는 고등학교의 영어교사로 40세 정도 되는 아직 독신인 히로타 선생을 산시로가 기차 안에서 처음 보았을 때, 히로타 선생은 짙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히로타 선생의 외모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오뎅한 콧대에 가름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여원 체구로 신사(神社)의 신관(神官)같은 인상이었다. 그의 이름이 「초(菫)」²⁰⁾이므로 성명은 히로타 초(広田菫)이며 고등학교 선생으로 근무한지는 12-13년 정도 된다.

산시로와 히로타 선생은 도쿄행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나 창으로 목을 내밀어 구입한 복숭아를 함께 먹는 사이에 제법 친해져서 여러 이야기를 나눈다. 산시로는 자신이 구마모토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법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도쿄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히로타 선생은 산시로에게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 1867-1902)가 과일을 아주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는 산시로에게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는 복숭아나무 줄기에 비소(砒石)를 주사해서 그 열매에 독이 퍼지는지 시험한 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복숭아를 먹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면서 「위험해.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해!」하고 말하고는 잔뜩 어질러진 복숭아씨며 껍질 등을 한꺼번에 신문지로 둘둘 말아서 창밖으로 던져버린다.

히로타 선생으로부터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건축가였던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는 이름을 들은 산시로는 서양에 대한 지식이 얕아 다소 주눅이 든다. 실제로 「서양을 가본 적」²¹⁾이 없이 서양 문명에 대해 서적과 사진을 통해 이해하고 있는 히로타 선생이 레오나

19) <http://ja.wikipedia.org/wiki/%E9%96%A2%E9%96%80%E9%89%84%E9%81%93%E3%83%88%E3%83%B3%E3%83%8D%E3%83%AB> 참조(검색일:2011.12.04)

20) 앞의 책, 夏目漱石『三四郎』(4), p.79

21) 위의 책, 夏目漱石『三四郎』(4), p.80

르도 다 빈치의 복숭아나무 줄기에 비소를 주사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근대의 과학실험, 호기심, 탐구심이 잉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관해 에비이 에이지는 「호기심과 과학적 실험이 간접적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결과가 되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고, 과학적 합리성의 추구하고 인간적 것과의 격차를 위험하다고 경고(警告)」²²⁾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하기 위해 자주 실험을 하는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과학자들에게 소세키가 전하는 실험의 위험성에 대한 경중(警鐘)하는 메시지라고 생각된다.

도쿄에 도착한 산시로는 우선 전차가 땡땡 울리는 데 놀랐다. 그리고 그 땡땡 거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데 놀랐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무리 가더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더구나 어디를 가나 목재가 널브러져 있고, 돌이 쌓여 있어, 모든 것이 파괴되고, 동시에 모든 것이 건설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산시로는 어느 날 저녁 도쿄 한복판에서 열차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하게 된다. 제등 불빛에 비친 젊은 여자는 기차에 치여 절반 정도 잘려 나갔다. 기차가 젊은 여자의 「오른쪽 어깨에서 젓가슴 밑을 지나 허리 위까지 완전히 절단하고는 비스듬히 잘린 동체를 남겨둔 채」²³⁾ 지나가 버린 것이다.

산시로는 열차 사고를 목격한 후, 너무 놀라 즉시 그 자리를 떠나 되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렸지만 발이 움츠러들어서 움직일 수 없었다. 제방을 기어올라 집으로 돌아오니 가슴이 두근거리 견딜 수가 없었다. 산시로의 눈앞에는 아까 본 여자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얼굴과 「아아……」 하는 힘없는 목소리. 그 두 가지 속 깊은 곳에 잠재해 있을 비참한 운명을 연결시켜 생각해보니, 인생이라는 역센 생명의 뿌리가 어느새 헐거워져 언제라도 어둠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처럼 여겨졌다. 그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

산시로는 이때 문득 기차에서 복숭아를 준 히로타 선생이 복숭아나무 줄기에 비소를 주사해서 그 열매에 독이 퍼지는지 시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복숭아를 먹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며 「위험해, 위험해,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해!」²⁴⁾ 하고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근대시대에 탄생한 기차는 근대문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철(鐵)로 만들어진 묵중한 무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을 싣고 빠른 속도로 달림으로 인해 시간의 표준화와 공간의 정복화로 일상생활권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한번 속력을 내면 멈추려고 해도 쉽게 멈출 수 없는 것이 기차의 속성이다.

22) 앞의 책, 海老井英次(2001)『開化・戀愛・東京-漱石・龍之介-』, p.50

23) 앞의 책, 夏目漱石 『三四郎』(3), p.57

24) 위의 책, 夏目漱石 『三四郎』(3), p.58 『三四郎』(1), p.20

소세키는 복숭아나무 줄기에 비소를 주사한 이야기와 젊은 여자가 열차 사고로 끔찍하게 죽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을 편리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 실험을 포함한 과학의 발전을 기본으로 해서 탄생한 근대문명이 항상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호소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하마마쓰(浜松)에서 기차가 서 있을 때 산시로와 히로타 선생은 기차 안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히로타 선생은 산시로에게 「이런 얼굴을 하고 이렇게 빈약해서야 아무리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일등국이 되더라도 소용」없다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일등국이 되었다고 우쭐대는 당시의 일본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히로타 선생은 도쿄행 기차를 타고 가다가 곧 나타날 후지산이 일본 최고의 명물이며, 그것 외에 일본을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한다. 산시로는 러일전쟁 이후에 이와 같은 히로타 선생을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가 일본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산시로는 「하지만 이제부터 일본도 점차 발전하겠죠」라고 말하자 히로타 선생은 담담하게 「망할 거야(亡びるね)」²⁵⁾라고 단정하여 말한다.

산시로는 규슈 구마모토에서 이런 말을 꺼내면 즉시 몰매를 맞거나 역적(逆賊) 취급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산시로는 자신이 어리다고 「업신여기고 우롱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히로타 선생은 「구마모토보다 도쿄가 넓어, 도쿄보다는 일본이 넓고, (중략) 일본보다는 머릿속이 넓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산시로는 정말로 구마모토를 떠났다는 실감을 하며 동시에 구마모토에 있었던 자신은 무척이나 비겁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산시로』가 아사히신문에 연재된 1908년경의 일본은 한국·중국에서 정치적·군사적 권익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 오던 러시아와 1904년(明治37) 2월에 정면으로 충돌하여 러일전쟁이 일어난다. 일본은 세계 최강의 육군이라 불리던 러시아 육군을 여순(旅順)·대련(大連)·봉천(奉天) 등지에서 격파하고, 러시아의 발틱함대마저 침몰시킨다. 1905년(明治38) 8월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알선으로 포오츠머스에서 강화 회의를 열고 9월에 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은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식된 것이다.

러일전쟁 이후 조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히비야 폭동 사건(日比谷焼き打ち事件)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일본은 자본주의의 산업 체제가 급속히 발전하였고, 전쟁 승리에 의한 높아진 국제적인 신용을 이용해서 외자를 도입하여 산업을 진흥시켜 호황을 이루어 나갔다.

메이지 신정부가 러일전쟁(1904-1905)을 승리로 이끌고, 조선을 사실상 식민지로 만들어

25) 위의 책, 夏目漱石 『三四郎』(1), p.23

버리자 일본 국민들 사이에는 세계의 일등국이 되었다는 의식이 만연했으며, 제등행렬과 불꽃놀이 등을 하며 전승(戰勝)을 기뻐했다.

『산시로』를 발표하기 8년 전에 영국 유학을 떠나 1900년 9월부터 1902년 12월까지 약 2년간 런던에서 유학을 했던 소세키는 서양 문명의 마이너스적인 면, 서양문명이 지닌 어두운 면을 동양의 어느 사람보다 먼저 체험했다. 그는 합리주의와 자유, 평등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근대 문명이 반드시 인간의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²⁶⁾했다. 때문에 겉으로는 서양의 근대를 모방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천황제 등을 포함한 봉건적 제도를 취하며 타 민족을 억압하는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일본의 현실과 미래를 우려의 시선」²⁷⁾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므로 『산시로』에서 일본이 발전하지 못하고 「망할 거야」라고 단언한 히로타 선생의 표현은 소세키가 서양 근대문명의 부정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문명의 밝은 빛에 눈이 멀어 경망스럽게 급진적으로 서구문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둠을 예측하여 사전에 그 「위험을 경고」²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5. 『만세전』에 나타난 갓장수의 현실 인식

염상섭의 『만세전』은 1922년 『신생활』에 연재한 『묘지』를 제목을 바꿔서 1924년 단행본으로 출판한 작품이다. 도쿄 유학생 이인화가 조선에 만세(萬歲)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해 겨울, 도쿄 W대학 문과에 재학하며 학기말 고시를 준비하던 중에 서울에 있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급전(急電)을 받고 갑자기 귀국하게 되는 것에서 작품이 시작된다.

이인화가 도쿄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 이동경로는 도쿄→고베→시모노세키, 부산(釜山)→김천(金泉)→영동(永東)→심천(深川)→대전(大田)→서울에 이르는 공간이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왔던 길을 반대로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도쿄로 되돌아가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인화는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들어와 부산 시가지를 둘러본 후 서울행 기차를 타고 가다가 김천역에서 내려 마중 나온 큰 형님을 만난다. 오랜만에 찾은 형님의 집에는

26) 윤혜영(2006) 「일본 근대화에 대한 소세키(漱石) 고뇌·動과 靜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3권제3호, p.232

27) 위의 논문, p.229

28) 앞의 책, 海老井英次 『開化・戀愛・東京-漱石・龍之介-』, p.51

늙은 형수와 새 형수가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새 형수는 공교롭게도 어린 시절에 알고 지내던 청주 읍내 최참봉의 둘째 딸이었다.

이인화는 김천의 형님의 집을 나와 서울행 기차 안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난다. 그 가운데 영동 역에서 올라온 갓을 쓰고 곰방담뱃대를 갖고 다니는 30세 전후로 성(姓)이 김(金) 씨인 「갓장수」를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눈다. 이인화가 갓장수와 기차 안에서 주로 대화를 나누는 구간은 기차가 영동(永東)에서 심천(深川)역에 도착할 무렵까지이다.

이인화는 갓장수에게 왜 머리는 안 깎고 다니느냐고 물으니 그는 「머리만 깎고 내지사람을 만나도 말대답 하나 똑똑히 못 하면 관청에 가서든지 순사를 만나서든지 더 성이 가신 때가 많지요. 이렇게 망진을 쓰고 있으면 ‘요보’²⁹⁾라고 해서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웬만한 것은 용서를 해주니까 그것만 해도 깎을 필요」³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말을 들은 이인화는 갓장수에게 머리를 깎는 것이 일본 사람들에게 천대를 덜 받고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고 갓을 벗어버리고 머리 깎을 것을 권한다. 그러자 갓장수는 「머리나 깎고 모자를 쓰고 개화장이나 짚고 다녀 보슈. 가는 데마다 시달리고 조금만 하면 뺨따귀나 얻어맞고 유치장 구경을 한 달에 한두 번쯤은 할 테니! (중략) 우리 같은 놈이야 맞으면 맞았지 별수 있나요?」³¹⁾ 라고 머리를 깎는 것이 살아가는데 어려움만 안겨준다고 주장한다.

일본 헌병 앞에서는 「바보 노릇을 해야 학대를 덜 받는다고」³²⁾ 생각한 갓장수는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다니는 것이다. 조선인들이 일본인들로부터 「요보」라고 낮추어 불리며 경멸받던 시대에 갓장수는 스스로를 「요보」처럼 취급받고자 한다. 자신처럼 갓을 쓰고 다니며 다소 배우지 못한 무지한 사람처럼 보이면 일본 헌병과 조선인 헌병 보조인들에게 천대를 받기는 하지만 유치장에 들어가거나 시달리고 얻어맞고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신양금(申良今)은 위와 같은 갓장수의 행동에 대하여 일제 식민지하에서 「왜곡되어 있는 전형적인 민중의 모습」³³⁾으로 보았다. 강송석은 일제강점기하에 「갓장수는 ‘요보’라고 천대를 받는 것이 개화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략) 조선인들의 가장 유리한 생활방도이며 억압당하는 조선인의 생활상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모습」³⁴⁾이라고 논했다.

이인화는 「어떻든지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핏박은

29) 일제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낮추어 부르는 말. 조선어의 여보(ヨボ)라는 말에서 유래됨.

30) 염상섭(2008) 『만세전』 열림원, p.218

31) 위의 책, p.218

32) 申良今(1973) 「橫歩의 抗日文學考-「萬歲前」을 中心으로-」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p.44

33) 위의 논문, pp.44-45

34) 강송석(2009) 「염상섭의『만세전』고찰」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p.17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 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 경계, 미봉(彌縫), 가식, 굴복, 도회(韜晦), 비굴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방도요, 현명한 처세술³⁵⁾로 이해한다.

그러면서 실상을 생각하면 갓장수의 이러한 생활철학은 갑자기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 전체 밑에서 더께가 얹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마는,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들어 갔기 때문이라고 조선역사 속의 봉건적 관료 전체가 갓장수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인화는 생각한다.

이어서 갓장수는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일본에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갈 수 밖에 없겠지만 조선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유풍이 있지 않습니까」³⁶⁾라고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공동묘지법에 반대하는 의사를 당대의 지식인 이인화에게 분명하게 표한다.

조선시대의 장묘문화(葬墓文化)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조선 왕조는 승유억불(崇儒抑佛)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화장과 매장, 그 이외의 장법(葬法) 형태가 혼재하는 가운데에서 유교 가치관의 영향으로 매장만의 장묘문화를 선택하였다. 특히 「성종 1년(1470)에 화장을 법으로 금지」³⁷⁾시키면서 매장은 조선인의 관습으로 자리잡았다.

조선시대에는 묘지의 경우에는 사회계급에 따라 그 크기를 제한하는 등 검소한 장사문화를 조성하였고, 매장 중심의 장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묘지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취했다. 조선 후기에는 풍수사상의 성행으로 양택의 택지를 모두 풍수지리설에 비추어 행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묘지 풍수신앙은 크게 성행하여 지손의 번성, 부의 획득, 영달의 소망」³⁸⁾을 묘지 선정과 관리에 걸었기 때문에 묘역의 광역화, 호화분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되자 조선총독부는 철도나 기지 건설, 광산 개발 등 각종 사업을 벌이는 데 묘지가 장애가 되는 것을 인식하고, 「1912년 6월 조선총독부령 123호에 의해 ‘묘지·화장장·매장 및 화장취체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금지되고 기피되어 왔던 화장이 일본식 화장법³⁹⁾이라는 새롭고도 낯선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 법령은 조선총독부가 효율적인 식민지 경영을 위한 임야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제정한 것으로서, 매장보다는 화장을 권장하여 공동묘지를 이용하도록 법률로 정해 집행하려고 했던 것이다.

35) 앞의 책, 염상섭 『만세전』, p.219

36) 위의 책, p.219

37) 송현동(2001) 「한국 장묘문화의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p.5

38) 허한양(2007) 「한국 장사(葬事)제도에 관한 연구-화장 후 유골안치 방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p.xxvi

39) 위의 논문, p.xxvii

그런데 당시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던 공동묘지법은 그때까지 풍수지리적인 명당을 찾는 등 자유로웠던 조선인의 개인 묘지의 조성 자유에 규제를 가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당시 공동묘지법 실시로 인해 조선총독부와 조선인들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조선의 전통 문화, 그 가운데에서도 부모 사후(死後)에도 정성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 매장관습(埋葬慣習), 장묘문화, 산소(山所) 보존 풍속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조선총독부가 공동묘지법을 법률로 정해 일방적으로 집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갓장수도 반발하고 그 폭력성에 저항하려고 했던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조선시대 후기까지 우리나라에는 부모가 돌아가면 장사지내는 일을 살아서 섬기듯이 하는 「생사장제(生事葬祭)」⁴⁰⁾의 고유한 문화가 이어내려 왔다. 조선에 그런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가 죽더라도 일본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처럼 화장을 하여 공동묘지에 묻으라고 조선총독부가 법률을 정해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갓장수는 노골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조선 문화파괴(文化破壞)의 폭력성(暴力性)과 부당(不當)함을 토로한다.

『만세전』의 갓장수는 외모(外貌)로 천대를 받더라도 일본 헌병과 조선인 헌병 보조인들에게 언어맞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여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다닌다. 그러나 조선의 고유한 매장관습과 장묘문화 등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동묘지법을 앞세워 막무가내(莫無可奈)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조선총독부의 폭력적 억압정책(抑壓政策)에는 순응하지 않고 강력하게 이의(異議)를 제기한다.

당시의 지식인 이인화가 「벧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인지? (중략) 앞으로의 문제와 자식의 문제」⁴¹⁾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자고 제안을 해도 「형장께서도 양친이 계시겠지요? 어떻게 하실 텐가요?」⁴²⁾ 라고 조금도 물려서지 않으면서 울분(鬱憤)을 터트리며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조금도 굴종(屈從)하지 않고 반발하는 조선민중의 저항정신을 내비치고 있다.

6. 결론

논자가 이제까지 분석한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40) 앞의 책, 염상섭 『만세전』, p.221

41) 위의 책, p.222

42) 위의 책, p.222-223

첫째, 근대화가 시작되는 시대에 한국과 일본의 근대인들에게 기차는 서양문명의 위력을 보여주고, 20세기 문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개화의 실상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소세키는 『풀베개』에서 기차를 문명이라는 긴 뱀으로 묘사했으며, 『행인』에서는 기차를 포함한 과학의 발전이 인간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염상섭은 『만세전』에서 기차 안 승객들의 다양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일제강점기 조선의 무겁고 어두운 현실을 투영시켰다.

둘째, 『산시로』의 히로타 선생이 일본이 「망할 거야」라고 표현한 것은 근대문명의 부정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문명의 밝은 빛에 눈이 멀어 앞뒤 가리지 않고 서양문명을 필사적으로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일본 미래의 어둠·위험을 경고했던 것이다. 그에 비해 『만세전』의 갓장수가 식민지 조선의 미래에 대하여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머리를 깎지 않고 갓을 쓰고 다니며, 외모로는 일부러 어리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일제의 혹독한 탄압이 있던 현실을 고려해 살아남기 위한 생존방법의 하나였다. 그러나 갓장수가 조선총독부의 공동묘지 정책에 굴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조선 고유의 매장관습과 장묘문화 등을 무시하고 공동묘지법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현실에 절망하여, 문화파괴와 폭력적 억압정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저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산시로』의 히로타 선생은 일본의 근대화가 서양으로부터 문화·문명 섭취에 의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서양의 과학실험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문명에는 합리성과 편리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에 반해 『만세전』의 갓장수는 조선의 근대화는 서양이 아니라 일본, 구체적으로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이 개설해 놓은 근대문명을 상징하는 기차 등을 이용은 하고 있지만 일본인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조선 민중들의 생사장제의 고유한 문화와 매장관습, 묘지보존문화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동묘지법을 만들어 밀어붙이는 조선총독부의 폭력적 근대화 정책에 굴종하지 않고 저항하려고 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산시로』와 『만세전』에는 한·일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세키와 염상섭 두 작가가 요란스럽게 문명개화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내 걸고 성취해 내려고 하는 급진적인 근대화의 현실에 대해 고민(苦悶)·한탄(恨歎)·우려(憂慮)·경고(警告)하는 육성(肉聲)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판단된다.

【參考文獻】

- 강송석(2009) 「염상섭의『만세전』고찰」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p.17
- 金志娟(2009) 「일상성을 통해 본『만세전』의 근대성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p.52
- 김윤식(2004) 『염상섭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p.348
- 매일경제신문, 2011년 09월 22일(목)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의 시대, 가난한자도…부자마저도…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기사참조.
- 申良今(1973) 「橫歩의 抗日文學考-萬歲前을 中心으로-」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p.44
- 송현동(2001) 「한국 장묘문화의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한신대학교 대학원, p.5
- 오준영(2005) 「일본에서의『산시로(三四郎)』연구경향과 성과 조명」『나쓰메 소세키의 전기삼부작 연구』, 제이앤씨, p.69
- 염상섭(2008) 『만세전』 열림원, pp.218-223
- 윤혜영(2006) 「일본 근대화에 대한 소세키(漱石) 고뇌-‘動’과 ‘靜’을 중심으로-」『인문학연구』33권제3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229-232
- 조선일보, 2011.04.24. 「일본 3·11 대지진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참조.
- 崔海秀(2004) 「나쓰메 소오세키(夏目漱石)와 염상섭문학의 영향관계 연구-『나는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와『박래묘(舶來猫)』-」『일본근대문학-연구와비평-』3, 도서출판月印, p.331
- 崔海秀(2005) 「청년지식인 근대체험의 두 양상-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三四郎』와 廉想涉의『萬歲前』의 비교-」『日本學報』제62집, 한국일본학회, p.248
- 하일식(2002)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한국사』일빛, p.251
- 허한양(2007) 「한국 장사(葬事)제도에 관한 연구-화장 후 유골안치 방법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p.xxvi
- 海老井英次(2001) 『開化・戀愛・東京-漱石・龍之介-』おうふう, pp.46-51
- 関川夏央(2004) 「漱石と汽車」『夏目漱石と明治日本』文藝春秋, p.49
- 夏目金之助(1995) 『日記』『漱石全集 第19卷』岩波書店, pp.199-201
- 夏目漱石(2005) 『坊っちゃん』(2) 岩波書店, p.18
- 夏目漱石(2003) 『草枕』(13) 岩波書店, pp.172-174
- 夏目漱石(2005) 『行人』(32) 岩波書店, p.347
- 夏目漱石(2003) 『三四郎』(1) 岩波書店, pp.12-80
- 村田好哉(1994) 「漱石『三四郎』書誌」翰林書房, pp.7-269
- 湯本豪一(1998) 『圖說明治事物起源事典』柏書房, p.324
- <http://theme.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449&pageFlag=C> 참조. (검색일:2011.12.12)
- <http://ja.wikipedia.org/wiki/%E9%96%A2%E9%96%80%E9%89%84%E9%81%93%E3%83%88%E3%83%B3%E3%83%8D%E3%83%AB> 참조(검색일:2011.12.04)

논문투고일 : 2011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1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20일

〈要旨〉

나쓰메 소세키의 『산시로』와 염상섭의 『만세전』 비교 연구
- 기차 안 승객의 현실인식을 중심으로 -

본 연구에서는 소세키의 『산시로』와 염상섭의 『만세전』을 비교하여 근대화 수단으로 이용되고 발전되어 온 기차의 의미, 두 작품의 주인공들이 관찰한 기차내 승객들의 현실 인식을 살펴보았다.

근대화가 시작되는 시대에 한국과 일본의 근대인들에게 기차는 서양문명의 위력을 보여주고, 20세기 문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개화의 실상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소세키는 『풀베개』에서 기차를 문명이라는 긴 뱀으로 묘사했으며, 염상섭은 『만세전』에서 기차 안 승객들의 다양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일제강점기 조선의 무겁고 어두운 현실을 투영시켰다.

『산시로』의 히로타 선생은 일본의 근대화가 서양으로부터 문화·문명섭취에 아래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서양의 과학실험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문명에는 합리성과 편리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에 반해 『만세전』의 갖장수는 조선의 근대화는 서양이 아니라 일본, 구체적으로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이 개설해 놓은 근대문명을 상징하는 기차 등을 이용은 하고 있지만 일본인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조선 민중들의 생사장제의 고유한 문화와 매장관습, 묘지보존문화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동묘지법을 만들어 밀어붙이는 조선총독부의 폭력적 근대화 정책 등에 굴종하지 않고 저항하려고 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산시로』와 『만세전』에는 한·일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세키와 염상섭 두 작가가 요란스럽게 문명개화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내 걸고 성취해 내려고 하는 급진적인 근대화의 현실에 대해 고민(苦悶)·한탄(恨歎)·우려(憂慮)·경고(警告)하는 육성(肉聲)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판단된다.

Comparative Study of ‘Sansiro’ by Natsume Soseki and ‘Mansejeon’ by Sang-Seop Yeom
-Focused on the Passengers’ Perceptions of Reality on the Train-

This study looked over the meaning of the train having been developed and used as the means of modernization, and passengers’ perceptions of reality on the train.

The ‘train’ shows modern people in Korea and Japan the power of western civilization in the beginning of modernization, and as a representative of twentieth century civilization as well as meaning which makes people feel the impact of the reality of enlightenment. Soseki described ‘train’ as ‘a long snake’ which represents a civilization in his work ‘Kusamakura’, and Sang-Seop Yeom reflected a gloomy picture of the Joseon period during the Japanese Ruling through the train passengers’ various lives in his work ‘Mansejeon.’

Hirota teacher in ‘Sansiro’ declared his worries about that Japan’s modernization was done rapidly from adopting western culture and civilization, and is also warning that modern civilization based on the western scientific experiment not only has rationality and convenience, but also contains dangerousness. By contrast, gat-seller(gat: Korean traditional hat) in the ‘Mansejeon’ shows that modernization of the Joseon period was made up by Japan-concretely by the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not by the West, and that even though Joseon people used trains representing modern civilization offered by Japan, it is difficult to find their consciousness being thankful to Japan for that. The Joseon People have a characteristic that they would rather resist, not submit, to the violence modernization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hat made a mass grave law and pushed for it without understanding well about the funeral institution culture including burial custom and cemetery preservation in the Joseon period.

Therefore, the ‘Sansiro’ and ‘Mansejeon’ are judged to have some voice messages from the two authors, Soseki and Sang-Seop Yeom, who are the representatives of the modern literature in Korea and Japan and are worrying, blaming, concerning, and warning about the reality of the radical modernization that people tried to achieve, presenting the catchphrase,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